

회 의 록

회의명: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장소 :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작성자: 김태영

일시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14:00 ~ 16:15

1. 참석자: 재적평의원 11명중 9명 참석

영한웅 의장, 조범진 부의장, 반창일 평의원, 조문호 평의원, 최영주 평의원, 황일두 평의원, 이호형 평의원, 김창기 평의원, 하강현 평의원 (이상 9명)

* 불참: 박민규 평의원, 고병철 평의원

* 배석: 전상민 교무처장, 김광재 기획처장, 김광우 가속기연구소 부소장, 학사관리팀 오창선 팀장, 가속기연구소 안요한, 경영관리팀 손임락 팀장(간사), 경영관리팀 김태영, 백창원, 김선일, 한소정, 안준기

2. 안건

○ 심의 안건

- 제1호: 졸업포상기준 개선에 따른 대학 학칙 개정안

○ 자문 안건

- 제1호: 2019학년도 대학 예산안

3. 주요 내용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간사의 성원 보고가 있었음.

○ 대학평의원회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교원대표 평의원, 직원대표 평의원, 학생대표 평의원(학부생), 교외평의원에 대한 총장의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 교원대표 평의원: 반창일, 영한웅, 조문호, 최영주, 황일두

- 직원대표 평의원: 김창기, 조범진

- 학생대표 평의원: 박민규*, 이호형

- 교외평의원: 고병철, 하강현

*: 개정된 대학원총학생회칙에 의거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맞춰 매년 3.1 ~ 익년 2월말까지로 위촉하므로, 추후 위촉 예정

○ 제7기 대학평의원회 의장단 선출이 있었음.

- 의장: 영한웅 평의원

- 부의장: 조범진 평의원

제1호 심의 안건: 졸업포상기준 개선에 따른 학칙 개정안

○ '졸업포상기준 개선에 따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전상민 교무처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음.

[심의 결과]

○ 참석 평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졸업포상기준 개선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 승인함.

[주요 내용]

- 포스테키안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기존 졸업요건인 실천교양 7 Unit(학점 미포함) 이수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스테키안 활동'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으며 학생들이 봉사, 대내·외 수상, 기타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2,100 마일리지(7 Unit 상응) 이상을 획득한 학생의 경우 동기부여와 대학 차원의 공식인증 측면에서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Proud Postechian Member'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졸업포상 기준의 상향 취지에 공감하며, 교과외 활동인 포스테키안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관련 포상 기준을 마련하되 학칙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위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 방향에도 동의한다는 이호형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창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3.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부 정책이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학칙 '제48조(졸업포상)' 개정 내용 중 '포상한다'가 아닌 '포상할 수 있다'로 표현한 이유와 상의 명칭도 라틴어 'Summa cum laude, Magana cum laude'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황일두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포상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되므로 징계 처분 등의 예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상의 명칭은 상세규정에서 변경 가능하므로 검토하겠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Proud Postechian 포상'은 졸업 시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업 이외에 다른 포상도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성적포상의 경우 졸업식에서 별도 시상 없이 학적부, 졸업증서에 표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은재상과 같이 특별상에 대한 표창을 진행한 바 있으나 Proud Postechian 포상을 시상할지, 학적부/졸업증서에 표기할 것인지에 등의 실행방안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학칙 개정, 예·결산 자문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등 학칙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도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기 바라며, 차기 대학평의원회부터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과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란다는 영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 차기 대학평의원회에 인문사회학부의 주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음.

제1호 자문안건 : 2019학년도 대학 예산안

- '2019학년도 대학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백창원 경영관리팀 대리, 가속기연구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광우 가속기연구소 부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관련하여평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주요 의견]

- 자문안건의 경우 회의 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상정한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의미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황일두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의결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정 안을 살펴보고 구성원의 중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여 반영하는 지는 제안부서에 달려있다는 영한웅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예산안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자문안건이지만 이사회에서는 의결안건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당히 긴 프로세스를 거쳐 왔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논의된 의견은 차기 예산 프로세스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부연설명이 있었음.
- 예산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사회 예산안 의결 시 첨부되는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학평의원회 뿐만 아니라 기획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경우도 별도로 이사회 의결 시 첨부하지 않고 있다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경우 대학 홈페이지 및 POVIS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자료를 일부 수정, 반영하기는 하나 회의록을 첨부하지는 않는다는 손임락 경영관리팀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음.
- 자문도 대학평의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며 자문 의견을 얼마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영한웅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총 사업비 359억원은 무엇이며, 기존의 특별회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사업비는 대학 예산에 대한 경영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분류한 기준이며 사업비는 법인에서 지원하는 특별사업비 135억원을 포함한 규모라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 예산은 구조보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2018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 및 2018년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현재 책정되어 있는 26억원의 예산에는 보강공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반창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바탕으로 5개년의 계획으로 어느 건물부터 보강을 실시할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 2019년에 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2019년의 계획이 2018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로운 점은 무엇이고 지속성은 있는지 등 작년 자료와의 비교가 없는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작년에는 각 항목마다 상세 설명 자료가 많아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 올해 앞부분에서는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별 투입예산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작년 대비 어떤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16 페이지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16 페이지를 보며 확인해 보려하였으나 추측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웠으며, 특히 신설되는 경우 신설(신규)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최영주 평의원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 4대 핵심가치로 사업비가 구분되는 등 자료 작성 형태가 작년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영한웅 의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각 가치별로 중점사업이 있고 중점사업 하위의 세부 사업도 몇 가지 사업으로 묶여 있는 형태라 사업별 비교 설명은 어려우나 특별사업 리스트 중 교수아파트 건립 등 3건은 기 승인 사업이며, 중앙연구장비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교육부에서 '대학연구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중앙연구장비센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관련 사업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잘 활용해야 하며 자료에서 언급한 예산은

그 동안 각 학과로부터 중앙연구장비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 250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많은 예산을 한 해에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외부 자원의 활용도 필요한 상황이라 우선 가장 시급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중앙연구장비센터는 어디에 구축할 계획인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나노융합기술원 첨단기술사업화센터로 논의하였으나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인재가치 사업 중 '포스텍-연세대 개방·공유 캠퍼스 활성화'에 예산의 50%가 투입되는데 어떤 용도인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부분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세대 겸직교수로 참여하는 우리 교원의 인센티브와 일부 학생 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아울러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대학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세대에서도 참여 교수들에게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추가 질의가 있었으며, 상응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각 대학에서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대학 내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잘 운영되지 않아 인센티브를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영한웅 의장의 질의가 있었으며, 여러 관점이 있겠으나 과거 영어강의 사례와 같이 제도 안정화를 위해 초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는 인센티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취지이며 추가적으로 연세대 겸직교수 참여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연구 분과의 경우 양교간 협의하여 추가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인문사회교육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학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잘못된 프로세스로 보여진다는 영한웅 의장과 반창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해당 예산은 대부분 연구소 활성화 취지의 예산이며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손임락 경영관리팀장과 전상민 교무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사업 내용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내용은 삭제해 주기 바란다는 반창일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음.

- 일반적으로 연구소 설립 시 대학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문사회학부 연구소에 대한 대학 지원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황일두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인문사회학부의 특수성과 인문사회 분야를 활성화시키자는 정책적 결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손임락 경영관리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예를 들어, 이학 분야에 신임교수를 유치할 때 공학 분야와는 다른 초기 정착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인문사회학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음.

인문사회 교육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한 후 지원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는 황일두 평의원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 회의에 참석한 평의원들이 회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안건 상정부서에서 자료 구성 및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는 조문호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음.

- 타 대학의 경우도 인문사회학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되나,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은 부족해 보임. 대학평의회 등 관련 위원회에 사전에 공유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조문호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소통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지는 못하겠지만 주임교수간 담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전상민 교무처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음.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황일두 평의원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 등록금, 생활비 등 학생경비 인상률의 결정 근거는 무엇이며 타 대학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은 기획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부는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인상없이 동결하고 있으며 대학원은 등록금 상한제 허용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있다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현재 책정되어 있는 장학금이 국내 최고 수준인지에 대한 최영주 평의원의 추가 질의가 있었으며,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분을 카이스트의 석/박사 과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이 높은 수준이라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관련하여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 학생이 평균적으로 받는 월 급여 총액과 우리 대학의 월 급여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학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영한웅 의장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 포톤 사이언스 센터에 고정자산 투입비로 2018년 미집행 20억원을 포함하여 2019년에 50억원이 투자된다고 알고 있는데 단년도에 Cryo-EM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Cryo-EM 구입에 대해서 재단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창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학에서 포톤 사이언스 센터로 가는 예산은 정해져 있으며 센터장 중심으로 장비 구입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면 된다는 손임락 경영관리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편성해 주기 바라며, 이공계 특성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인문사회 융합 관련 사업은 신중히 추진하였으면 한다는 하강현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지진대비 사업으로 26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8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기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의거 취약 판정을 받은 건물 중 학생 기숙사를 최우선으로 구조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김광재 기획처장의 추가 설명이 있었음.

- 지식가치의 내용 중 '강한연구그룹 육성'에서 '대형연구사업발굴'과 '대형사업 종료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의 구분과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기초연구' 수월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최영주 평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대형연구사업발굴'은 정부 대형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보고서 발간비 정도에 해당되며 '대형사업 종료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은 BK21+종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진비를 의미함.

아울러 S20에 기초과학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간운영계획의 상세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영관리팀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또한 자료에는 빠져있으나 기초과학연구소 지원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백창원 대리의 답변이 있었음

-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는 2019학년도 연간운영계획 내용을 대학평의회에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영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 사업별 예산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는 황일두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음.
-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보고 시 계획 대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염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 예산 발표에 핵심가치별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작년대비 증감, 변화의 파악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며, 예산에 대한 자문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의장으로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염한웅 의장의 종합 의견이 있었음.
- 예산 내용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종 연구소 설립, 석사과정 신설 등 기존에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대학의 핵심가치와 맞는지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

지진대비 내진 성능평가 결과, 상당수의 건물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재난 안전의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염한웅 의장의 종합 의견이 있었음.
- 차후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문 의견이 대학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는데 염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담당자 김대영 교수

참석자

담당자 팀장 교수 주임교수 교수
교수

이호형 평의원

이호형

하강현 평의원

- 사업별 예산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는 황일두 평의원의 요청이 있었음.
-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보고 시 계획 대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염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 예산 발표에 핵심가치별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작년대비 증감, 변화의 파악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며, 예산에 대한 자문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의장으로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염한웅 의장의 종합 의견이 있었음.
- 예산 내용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종 연구소 설립, 석사과정 신설 등 기존에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대학의 핵심가치와 맞는지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

지진대비 내진 성능평가 결과, 상당수의 건물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재난 안전의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염한웅 의장의 종합 의견이 있었음.
- 차후에는 예산안에 대한 자문 의견이 대학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는 염한웅 의장의 요청이 있었음.

담당자 김태영 교수

참석자

담당자	팀장	교수	겸임교수	교수
교수				
이호형 평의원		하강현 평의원		